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차별경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김 채 윤(경북대 박사과정) · 배 윤 진(경북대 시간강사) · 임 지 영(경북대 부교수)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청소년들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확립하게 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일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적응해나가는 데 있어 청소년 개인이 지닌 내적 역량이자 사회적 유능감으로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차별경험은 자아정체감과 함께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요인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차별경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서울·경기 및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다문화청소년 184명이었으며, 박아청(1996)의 자아정체감 척도, Harrell(1997)의 일상적인 차별경험의 빈도를 평가하는 척도, 김아영(2002)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원 다변량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수준(상/하) 및 차별경험수준(상/하)에 따라 교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학교수업적응, 학교규칙적응과 같은 학교생활적응 전반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차별경험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높은 집단이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차별을 많이 경험하더라도 자아정체감이 높으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는 편견과 차별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있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차별적인 상황으로부터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아정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적 차원, 가정환경적 차원, 사회환경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변인으로 차별경험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의 역할 및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교사와 또래, 그리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에 앞서 건전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확립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준다.